

문화로 보듬고, 협업·개방·소통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광주문화재단 창립 15주년...다시 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장·글빛마루정원 등 공간 개방 확대
예술창작활동 33억여원 지원...‘아트광주25’로 유통 활성화
5개 자치구 협력 문화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광주문화재단이 13일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2011년 ‘문화의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범한 재단은 지난해 5월 노회용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내실 있는 변화를 일궈가고 있다.

지난해 재단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에 맞춰 사업의 내실을 공고히 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전국 1위(93.4%) 달성과 기관 경영평가 A등급의 성과를 거뒀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난해 공모 선정을 끝마쳐 1월부터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예술인 창작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올해 예산은 33억5천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3억9천만원 증액됐다.

호남 최대 미술시장 ‘광주아트페어’는 12년 만에 재단이 주관했다. 갤러리 96곳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또한 거리예술축제 ‘프린지페스티벌’과 청춘문화누리터 사업, 도심 속 누각 ‘회경루’ 전통문화 공연·체험 프로그램 추진으로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의 활기를 더했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전국 대학생 60여명이 참여한 ‘한강문학기행’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매개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문도시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민관산학 전문가 45명으로

발족한 ‘문화예술 정책거버넌스’는 미래 문화도시 광주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했다.

올해 재단은 ‘시민과 더 가까이, 협업과 개방’을 키워드로 사업을 추진한다.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은 전시장과 미팅룸으로 리모델링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책 읽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을 ‘글빛마루정원’으로 조성,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의 첫 출발점이 될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는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디제이, 힙합,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청춘문화누리터’는 올해도 청춘문화기획단과 함께 청춘문화광장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접한 회경루 또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과 공간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새롭게 추진한다. 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다중이용 장소에서 야외공연 50팀이 매주 토요일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목요일상설공연과 토요일상설공연



아트광주24 개막식

은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장르를 무대에 올린다.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은 전통 가무악극과 체험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관람객의 흥을 돋운다.

광주아트페어는 지역 미술관들과 협업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한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아트광주25’와 함께 분행사 사전 불 조성을 위한 ‘아트광주 퍼블리온’을 추진해 새로운 예술상품 유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의 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디어마이광주’도 예술인 작품과 활동 홍보를 강화한다. ‘아트플라보’와 ‘아트스토어’ 활성화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시마켓 및 팝업스토어 ‘디어마이워크’를 연계 추진해 시민들이 함께 광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간다.

거버넌스를 활용한 정책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발족한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는 올해 미래 문화도시 광주를 위

한 중요의제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SI활용 예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업 공동기획, 시정책제안 등 거버넌스 활동을 지속하고 실행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정부·의회·중앙기관 참여 모델을 마련한다.

아시아철학·신학컬러콘텐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광주전남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철학나 민속자료 전수소사를 끝마쳤다. 올해는 중국·일본·몽골 등 동아시아 철학·신학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학술 컨퍼런스를 진행함과 동시에 향후 공연 무대에 오를 작품 시나리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노회용 대표이사는 “올사년 푸른 뱀의 지혜로움과 유연함을 본받아 문화예술의 힘이 발휘되도록 임직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함께 극복해가겠다”고 밝혔다.



위로부터 청춘문화누리터 공연, 2024 프린지페스티벌 주제공연 ‘아스팔트부르스’, 회경루에서 열린 ‘회경낙 어린이 백일장’, ‘찾아가는 문화공연’ 모습

ACC서 만나는 ‘미틸라 회화’

3월3일까지 ACC아시아문화박물관 이달의 소장품展

‘미틸라 회화’. 네팔과 인도 국경지대에 있었던 고대 미틸라 왕국의 수도 자낙푸르를 중심으로 여성에 의해 그려지는 전통 회화를 의미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오는 3월3일까지 이달의 소장품전 ‘미틸라 회화’를 진행한다.

미틸라 회화는 전통적으로 남아시아 여성에 의해 계승됐으며 태양·달과

같은 자연 요소, 물고기·코끼리와 같은 동식물, 사람들의 일상생활, 힌두 신화를 주제로 밝고 화려한 색상으로 그려진다.

1980년대 중반부터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고, 현재는 다양한 일상 용품으로 확장됐다. 최근에는 현대적 주제를 다루며 지역의 상징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미틸라 회화가 그려진 공예품

이번 전시에서는 ACC의 소장품인 미틸라 회화와 공예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전통문화와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화염사, 홍매화 프리미엄 유기농 화장품 4종 출시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는 13일 홍매화 프리미엄 유기농 화장품 4종 세트(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된 상품은 화염사의 대표 브랜드인 홍매화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유기농 화장품으로, 천연화장품 브랜드 프랑스와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천연 성분과 유기농 함량을 높인 고품질 화장품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

로 기대된다.

화장품은 4단계로 구성됐다. 딥클렌징 오일은 천연 함량 83%·유기농 함량 47%, 광채 볼륨 미스트는 천연 함량 97.9%·유기농 함량 51%, 로즈워터 허알루론산 스킨은 천연 함량 95%·유기농 함량 82%, 에센스는 천연 함량 95%·유기농 함량 66%다.

성기홍 화염사 홍보기획위원장은 “유기농 화장품 출시를 시작으로 화염사의 상징인 홍매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부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뻗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